

전주역사(驛舍)를 고품격 철도역으로

시, 전북도·지역정치권과 TF팀 구성·운영

전주시가 전북도, 지역정치권과 함께 낡고 오래된 전주역사(驛舍)를 문화재에 버금가는 품격 있는 역사로 새롭게 만들기 위해 힘을 합쳤다.

전주시는 최근 정동영 국회의원 보좌관과 김광수 국회의원 보좌관, 정운천 국회의원 보좌관, 전주시 관계자, 전북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품격 있는 역사(驛舍) 만들기' 추진을 위한 TF팀 회의를 열고, 전주역사의 전면개선을 위해 공동 대응해나

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지어진 지 35년이 경과해 주차장과 대합실 등 제반시설이 노후·협소하며 편의시설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전주역사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같은 날 전주역사 전면개선 요구에 따른 실태파악을 위해 전주역을 방문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에게 전주역사의 전면개선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전면개선을

위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용을 2017년도 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기도 했다.

전주시와 전북도, 지역구 국회의원 관계자들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와 코레일 등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전북연구원을 통해 전주역사 전면개선 필요성에 대한 정책보고서를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향후 공동으로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와 코레일 등을 상대로 전주역사 전면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설득해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김승수 전주시장은 올해 열린 각종 정책협의회와 국회방문, 정부부처 예산확보 활동 등을 통해 전주역사의 문화재급 전면개선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역설해왔다.

송하진 도지사도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과 국무조정실장, 지역발전위원장, 행정자치부차관, 관련 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오찬 간담회에서 전주역 선상역사 건립 추진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는 등 전주역사 전면개선에 힘을 보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정동영 의원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등을 통해 전주역사의 증개축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꾸준히 요구하는 등 전주역사 개선을 위한 선봉에 섰다.

국민의당 전북도당과 새누리당 전북도당을 이끌고 있는 김광수 의원과 정운천 의원도 전주역사 개선을 위한 도당 차원의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전주역은 최근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위한 허리경제권(전북~경북) 거점공간으로 급부상한데다, 세계적인 여행 안내지침서인 '론니플레이어'에서 전주역을 전 세계 여행객들이 1년 안에 꼭 가봐야 할 아시아 관광명소 3위로 선정해 전주역사를 이용한 국내·외 관광객은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병집 전주시 교통안전과장은 "철도역사는 지역의 관문일 뿐 아니라, 도시의 첫 인상을 결정짓는 지역적 상징성을 나타낸다"며 "전라감영이 위치했던 전라도의 중추도시로서 오는 2018년 전라도 개도 천년에 맞춰 전주역사 전면개선 사업(품격 있는 역사 만들기)을 추진, 전주역이 새로운 전주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완산구, 대형 향토음식점 위생점검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이용호)는 지역축제가 많이 열리는 가을철을 맞아 대형음식점과 향토음식점에 대한 특별 위생 점검에 나선다.

완산구는 가을철에도 낮 기온이 높아 식중독균이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 지속되고 있어 식중독 예방을 위해 다음달 4일부터 21일까지 대형음식점 및 향토음식점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 위생점검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들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대형음식점의 식품위생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위생점검은 일반음식점 면적이 500㎡ 이상인 대형음식점과 향토음

식점 총 67개소를 대상으로, 식품 등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준수, 무신고 제품 사용여부, 영업자 및 종사자 등 개인위생관리 등에 대하여 중점 점검하고,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세균오염분 식기(ATP)를 활용해 조리종사자의 위생과 칼, 도마 등 조리기구에 대한 오염도를 조사하고 현장교육을 통해 종업원들의 식품위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위생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 조치토록 하고, 중요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재 기자



양대노총 공동 총파업 총력 투쟁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 '양대노총 공동 총파업 총력투쟁대회'에서 이인상(오른쪽) 한국노총 공공연맹노조 위원장과 조상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 포옹을 하고 있다.

전주시, 마실길 안내지도 제작 배포

전주시가 천년 전주의 혼과 열이 담긴 생태문화 탐방로인 마실길을 활성화시키기 시작했다.

전주시는 스토리가 있는 전주의 생태문화 탐방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주에 조성된 자연생태체험형 도보 여행길(마실길)을 소개하는 안내지도 4250부를 제작해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안내지도에 소개된 마실길은 전주시의 수많은 도보여행길 중 환경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천년전주 마실길

(11.9km)과 모악산 마실길(13.8km), 삼천 마실길(10km), 한옥마을 둘레길(7.1km) 등 4개소 42.8km 구간이다.

안내지도에는 4개의 마실길 주변 명소에 대한 소개 탐방객들이 마실길을 걸으면서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정보가 소개됐다.

시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관광안내소(전주역, 고속터미널, 경기전, 한옥마을)와 시청민원실 등에 안내지도를 비치할 계획이다. /김영재 기자

공동체 한마당 축제 만든다

전주시, 온두레 공동체 활성화 워크숍 개최

전주시가 온두레 공동체들과 함께 전주에서 열리는 사회적경제 박람회와 전국 공동체 한마당 행사를 준비한다.

전주시는 29일 전주시혁센터에서 온두레 공동체 회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두레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오는 10월과 11월 전주에서 열리는 사회적경제 박람회와 공동체 한마당 행사를 전주시 지역 공동체들이 연합으로 기획하고, 함께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시는 이날 타 지역에서 공동체 간 협업을 통해 진행될 행사 사례들을 소개하고, 참여 공동체로부터 행사 프로그램 준비 및 운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공동체 회원들은 소규모 장터 참여에서부터 홍보와 분야별 기획에

이르기까지 공동체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실현시키기 위해 적극 참여하고, 개별 공동체 참여가 아닌 분야별 공동체들이 함께 연합체를 만들어 연합부스를 운영하겠다는 세부계획을 도출했다. 또한 이날 워크숍은 올해 보조금 지원 대상 온두레 공동체 외에도 지난해 온두레 가족으로 활동한 공동체들도 함께 참여하고, 온두레 공동체 연합 기획팀을 이뤄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온두레 공동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 마련한 공동기획안에 따라 주요 행사에 직접 참여하고 타 지역의 선진 사례와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활동을 보고 배우면 공동체의 역량강화는 물론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재 기자

전주 신중양시장, 야간장터 열린다

10월 한 달간 매주 토요일

전주 신중양시장에서 10월 한 달간 매주 토요일 시민과 상인이 참여하는 야간장터가 열린다.

29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 신중양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단장 박광철, 이하 사업단)은 오는 10월 1일부터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신중양시장에서 '모두가 즐거운 마켓, 모두의 장터'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에는 △ '아기자기' 수공예품존 △ '예뻐 맛있어' 간식먹거리존

△ '싸다 싸' 중고물품존 △ '고사리 손' 어린이마켓 △ '완전 신나' 체험존 등 5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해 총 30개의 부스가 운영된다.

사업단은 이번에 운영되는 30개의 부스 중 25개 부스는 사전에 참여자를 확정해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또, 나머지 5개 부스에 대해서는 매주 행사 당일 참가자를 모집해 시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시장상인과 모두의 장터 참여 판매자, 시장 방문 고객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플래시몹 공연과 런닝맨 놀이,

시장사진콘테스트, 과일 꺾기 대회, 쿠폰 사은품 지급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박광철 사업단장은 "이번 모두의 장터는 협업과 소통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기존 전통시장에서 진행했던 야시장과는 차별화된 운영으로 시장상인과 모두의 장터 셀러, 그리고 찾아온 고객들이 모두 행복해지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시 전통시장육성지원사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장 내에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하고 시설행대화사업 등을 추진해 전통시장의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더욱 많은 시민이 방문하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직장 동료 여직원 치마 속 '물카' 촬영 30대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6단독(정운현 판사)는 상습적으로 동료 여직원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전주시내 한 회사에서 직원 A(25·여)씨에게 교육을 진행하면서 신고 있던 슬리퍼 틈에 휴대전화를 끼운 채 A씨의 옆에서 서서 A씨의 치마 속을 6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재 기자

전주매일의 창간 8주년을 축하합니다

모두가 가보고 싶은 **장수군**입니다.

장안산 억새숲 금강의 발원지 뜬봉샘 승마의 고장

NAVER 장수군형 검색